



웃음의 사회학

류 지 석
문화공간 봄 대표

장미의 이름과 웃음

몇 해 전에 타계한 이탈리아의 석학 움베르토 에코는 기호학자, 중세학자, 철학자이면서 소설가였다. 소설은 주말을 이용해서 쓴다는 에코에게 세계적인 명성을 가져다준 작품은 1980년에 출판되어 현재까지 40여 개 국가에서 번역되고, 5,000만 부 이상이 팔렸다는 <장미의 이름>이다. 이 추리소설은 14세기 이탈리아 북부의 한 베네딕토회 수도원에 영국 바스커빌 출신의 프란체스코회 수도사 윌리엄이 모종의 임무를 띠고 도착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그의 도착과 함께 수도원에서는 의문의 살인 사건이 연이어 벌어진다.

수도원장으로부터 이 사건을 해결해달라는 부탁을 받은 윌리엄은 이 소설의 화자로 등장하는 시자인 아드소와 함께 수사에 나서지만 연쇄 살인 사건은 계속된다. 결국 해박한 지식과 놀라운 관찰력에 뛰어난 추리력까지 갖춘 윌리엄은 신앙과 지식의 절대적 권위를 상징하는 장서관에 보관된 한 권의 책을 둘러싼 연쇄 살인 사건의 배후에 장서관을 지배하고 있는 눈먼 원로 수도사인 부르고스 출신의 호르헤가 있음을 간파한다. 프란체스코 수도회의 윌리엄은 중세의 교조적인 교리와 경직된 종교적 세계관을 벗어나지 못하는 호르헤와 신학 논쟁을 벌이는 과정에서 그러한 의심을 더욱 굳혀간다.

장서관의 사자실은 수도사들이 고문서와 고서를 번역하거나 새로 필사하고 삽화를 그려 넣는 작업을 하는 곳이다. 사서를 역임한 호르헤는 그곳 한구석에 자리 잡고 수도사들의 움직임과 작업을 감시하거나 불쑥 나타나서 수도사들에게 작업을 서두르라고 호통친다. 윌리엄이 사자실을 처음 방문한 날에도 수도사들이 모여서 필사본의 삽화를 보면서 함께 웃고 있을 때 어느새 그가 나타나서 일갈한다. “공허한 말, 웃음을 유발하는 언사를 입에 올리지 말지어다!” 첫 대면의 자리에서 호르헤와 윌리엄은 ‘웃음’의 문제를 두고 신학 논쟁을 벌인다. 웃음을 유발하는 것, 우스꽝스러운 것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늙은 수도사와 이에 반대하는 윌리엄의 논쟁은 그다음 날에도 이어진다. 이미 아리스토텔레스

가 지적했듯이 웃음이란 인간에게만 있는 것이며 이성성의 기호일 뿐만 아니라 사람의 기분을 바꾸어 주고 육체에 낀 안개를 걷어주는 좋은 약이 될 수 있다는 윌리엄의 주장에 호르헤는 반발한다. “웃는 자는, 자기가 웃는 대상을 믿지도 않고 미워하지도 않습니다. 따라서 악한 것을 보고 웃는다는 것은, 악한 것과 싸울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뜻이요, 선한 것을 보고 웃는다는 것은, 선으로 말미암아 스스로를 드러내는 선의 권능을 부인한다는 뜻입니다.” 호르헤의 이러한 주장은 진리와 선함에 어울리는 표현은 엄숙함이라는 베네딕토회의 엄한 규율과 일치한다. 중세의 한 수도원에서 는 특별히 용인할 수 있는 이유가 없으면 웃음을 터뜨리는 사람을 특별 단식의 벌에 처했다는 기록이 있는 것으로 봐도 이러한 규칙은 적용되고 있었던 것이 틀림없다. 호르헤는 그리스도는 웃지 않았고, 웃음은 어리석은 바보들의 짓이며, 신의 권위를 부정하게 되는 위험을 지니고 있다고 설 파한다.

웃음에 대한 논쟁

그렇다면 수도원에서 일어난 연쇄 살인 사건과 연관된 것으로 생각되는 사라진 한 권의 책과 웃음에 대한 이러한 논쟁 간에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소설의 후반부에서 윌리엄과 아드소는 여러 차례의 시도 끝에 장서관의 밀실로 가는 비밀 통로를 발견하고 그곳으로 들어간다. 거기에는 호르헤

가 책이 가득 쌓인 서안 뒤에 한 권의 책을 가지고 두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다. 문제의 책은 윌리엄이 짐작한 대로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 2권이었다. 〈시학〉에 대해서 잠시 덧붙이자면, 아리스토텔레스는 〈시학〉 1권에서 비극뿐 아니라 희극에 관해서도 이야기하겠다고 했지만 현존하는 〈시학〉에는 주로 비극에 관한 내용만이 있을 뿐 희극과 웃음에 대한 내용은 제대로 다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철학자의 다른 책에서 희극에 관한 내용은 〈시학〉에서 논의하였다는 구절이 있으므로 〈시학〉의 2권은 실제로 존재했을 가능성이 크지만, 아직 발견되지 않고 있다. 한때 크레타섬의 수도원에서 완전한 형태의 필사본이 발견되었다는 소문이 있기도 했지만, 사실이 아닌 듯하다. 900쪽에 달하는 흥미진진한 이 소설을 읽기가 부담스럽다면 1986년 프랑스의 장 자크 아노 감독이 제작하고 007 영화의 주연으로 잘 알려진 손 코네리가 주연으로 출연한 영화를 보기 바란다. 지난 여름 늦은 밤시간에 이탈리아에서 제작한 TV 시리즈가 KBS를 통해 8부작으로 방송되기도 했다.

다시 소설의 한 장면으로 돌아가면, 장서관의 밀실에서 두 수도사는 또다시 웃음에 관한 논쟁을 이어간다. 윌리엄은 호르헤에게 왜 그토록 다른 사람이 희극과 웃음에 관한 〈시학〉 2권을 읽는 것을 두려워하였는지 묻는다. 그는 웃음은 허약함, 부패, 육신의 어리석음을 드러낼 뿐 아니라 사람들을 악마의 두려움에서 해방시켜서 신에 대한 두려움에서마

저 벗어나게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웃음의 긍정적인 면이 중세 신학의 토대가 되었던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에 의해 정당화되는 것은 극단적 교조주의에 사로잡힌 호르헤에게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었다. 그래서 그는 이 문제의 책을 오랫동안 비밀의 방에 감추어 두었고, 서책의 모서리에 독약을 발라서 혹시라도 이 책을 몰래 읽으려는 수도사들이 침을 발라가며 책장을 넘기는 과정에 자연스럽게 독극물 중독으로 죽도록 흥계를 꾸몄던 것이다.

유연함과 경직성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 이래로 데카르트, 홉스, 칸트, 쇼펜하우어, 스펜서, 프로이트 등 수많은 학자가 웃음의 문제에 대하여 언급하였지만, 여전히 사람들이 왜 웃으며, 무엇에 대하여 웃는지 통일된 해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프랑스의 철학자인 앙리 베르그손은 1900년에 출판된 <웃음. 희극적인 것의 의미에 대한 시론>에서 많은 희극 작품을 바탕으로 이 문제를 해명하려고 시도한다. 그는 상황, 행위, 말과 성격이라는 측면에서 웃음의 문제를 풀어나가는데, 한마디로 우스꽝스럽거나 희극적인 것을 “생명적인 것에 덧붙여진 기계적인 것”으로 정의한다. 생명 존재인 인간의 삶은 연속성과 변화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데 여기에 기계주의적이거나 자동주의적인 요소가 끼어들 때 웃음을 일으키게 된다는 것이다. 인간은 생물학적인 차원에서 생존을 위하여

항상 주변 환경의 변화에 적절히 대처해야 할 뿐 아니라 집단 속에서 함께 살아가야 하는 삶의 요구에 유연하게 응해야 한다. 그런데 방심이나 경직성 때문에 개인적 차원이나 집단적 차원에서 제대로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이러한 결점에 대한 즉각적인 교정을 요구하는 징벌이 바로 웃음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은 웃음을 사회적, 도덕적 측면에서 접근한다는 점에서 흥미로운 시도가 아닐 수 없다. 그런 점에서 웃음은 궁극적으로 사회 전체의 질서를 유지하고 구성원들을 사회로 귀속시키는 역할을 하는 유용성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웃음과 사회

생리학적으로 웃음은 여러 개의 안면 근육을 동시에 수축하게 하고 몸속의 근육 가운데 200여 개 이상을 움직이게 만드는 자연적인 운동이라고 한다. 실험 결과에 따르면 웃음은 면역세포를 활성화하여 스트레스를 이겨내는 힘을 강화하고 몸의 저항력을 키워준다고 하니 심신에 모두 도움을 주는 것이 틀림없다. 그런데 요즘 우리 주변을 살펴보면 정치, 경제, 사회 어느 부분도 함께 즐겁게 웃을 수 있는 상황과는 거리가 멀다. 상대방을 조롱하거나 특정 집단을 비하하여 불쾌감과 모멸감을 자아내는 유머, 사람을 업신여기면서 쾌감을 느끼는 비웃음, 수치심을 유발하고 희롱하는 웃음, 권력과 지위에 도취해 상대방을 무시하는 경멸적 미소

와 같은 건강하지 않은 병적인 웃음이 만연해있는 단절의 사회가 우리의 일상이 되었다. 앞에서 베르그손이 이야기한 웃음의 사회적 기능에는 유연함을 바탕으로 한 공생의 필요성이 전제되어 있다. 그런데 우리 사회 곳곳에서는 유연한 태도로 타협과 합리적 대안을 도출하려는 노력보다는 진영 논리로 무장하고 자기만 옳다고 주장하면서 대결로 치닫는 경직된 모습을 볼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즐겁게 웃음을 터뜨릴 수 있겠는가. 웃음과 여유가 사라지고 탄식과 눈물, 비웃음과 경멸, 독선과 아집이 지배하는 사회는 결코 건강한 사회일 수 없다. 교수신문이 올해의 사자성어로 ‘잘 못하고도 고치지 않는다’라는 뜻의 과이불개(過而不改)를 선정했다고 한다. 우리가 옳다고 믿는 것이 반드시 그렇지 않을 수 있으며 나와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있다는 열린 사고와 태도는 우리를 건전한 웃음의 사회로 이끌어줄 것이다. 마지막으로 <장미의 이름>에서 윌리엄 수도사가 제자인 아드소에게 이야기해주는 진리와 신념에 관한 구절을 소개한다.

“진리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자를 경계하여라. 진리를 위해 죽을 수 있는 자는 대체로 많은 사람을 저와 함께 죽게 하거나, 때로는 저보다 먼저, 때로는 저 대신 죽게 하는 법이다. 호르헤가, 능히 악마의 대리자 노릇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저 나름의 진리를 지나치게 사랑한 나머지 허위로 여겨지는 것과 몸 바쳐 싸울 각오가 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호

르헤가 아리스토텔레스의 서책을 두려워한 것은, 이 책이 능히 모든 진리의 얼굴을 일그러뜨리는 방법을 가르침으로써 우리를 망령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해줄 수 있어 보였기 때문이다. 인류를 사랑하는 사람의 할 일은, 사람들로 하여금 진리를 비웃게 하고, 진리로 하여금 웃게 하는 것일 듯하구나. 진리에 대한 지나친 집착에서 우리 자신을 해방시키는 일……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쫓아야 할 궁극적인 진리가 아니겠느냐?” **인본세상**